

지역별 환경·문화 살리고 기업 중심 맞춤형 서비스

워케이션 도시 성공 비결은?

순천시, 인기 만점 정원 테마로 주거시설 '케빈' '에코촌' 운영
여수시, 해양박물관 시설 이용 미팅룸·사무존·화상회의 가능
곡성군, 귀촌 청년들 조합 팍앤디 '리스팅 타운' 전국적 인기몰이



순천시 정원워케이션센터 전경.



여수시 워케이션센터 내부 모습.

순천과 여수, 곡성군이 워케이션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지역별로 독자적인 환경과 문화를 잘 살렸다는 점이다.

정원박물관이 전국 최대 관광지가 된 순천은 '정원'을 테마로, 여수는 기존 해양박물관 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도심과 관광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곡성군은 휴식과 관광보다는 기업 중심 서비스 위주로 초점을 맞췄던 점이 성공 비결로 꼽힌다.

순천 정원워케이션의 경우 우두막 형태의 '케빈'과 한옥인 '에코촌'의 두 가지 주거시설이 있다. 이중 케빈은 11월까지 예약 완료됐으며, 매달 초 예약 받는 '에코촌'은 인터넷으로 예약 개방한 지 얼마 안 돼 예약이 끝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예약 오픈 4개월 만인 8월 현재 방문객 수가 약 8000여명에 달한다.

순천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또 다른 사무공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공공형 워케이션' 모델을 구상 중이다.

여수는 워케이션 센터 내 6인 규모의 미팅룸, 복합기 등 갖춘 사무존, 1인용 업무공간(14석), 집중형 업무공간(3석) 그리고 화상회의 및 1인용 폰부스 3곳 등을 마련하고 있다.

주거시설은 박물관 내 다락후 호텔, 유평마리나 호텔, 베네치아 호텔 등 호텔 3동이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5만5000여 마리의 해양생물이 있는 아쿠아리움을 볼 수 있는 '아쿠아플리넷'과 여수 바다의 풍경과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요트투어'가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박물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여수시도 현재 협약된 서울경제진흥원과 연계해 향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유치해 보다 효율적인 워케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곡성군의 워케이션은 전남지역 내 선도적인 사례로 꼽힌다.

귀촌한 청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팍앤디'의 프로그램 '청춘작당'에서 비롯된다. 2022년부터 본

격적인 워케이션을 운영하면서 팍앤디는 '리스팅 타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무엇보다 워케이션 개념도 휴식과 관광보다는 기업 중심 서비스 위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대기업 등 총 217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규모가 큰 기업은 팀별로, 중소기업은 전 직원이 참여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4.6일 거주한다.

개인별 참여 프로그램은 '포레스트 캠프'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됐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휴양과 일의 개념이 아닌 근로여정(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모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1회 당 12명씩 5박6일 체류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이미 예약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팍앤디의 다음 목표는 기업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체류가 아닌 6개월~1년 정도의 장기체류형이다. 무엇보다 IT 또는 기술서비스업의 기업을 섭외해 장기체류를 통해 곡성에 안착되면 지역적으로 특화된 업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팍앤디의 서동선 대표는 "기업마을에 들어올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체류기간은 앞으로 더 협의하면서 결정되겠지만 1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앞으로 이러한 기업마을을 2~3개 더 조성하게 되면 당초 추진했던 워케이션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써 지역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효율적으로 기여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격상 논의 진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옹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러크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러크 총리의 방한은 지난 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러크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간 긴

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러크 총리는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군 사령부 회원으로 기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러크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의 도전 및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또 내년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임을 고려해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 달성을 목적으로 한-뉴질랜드 FTA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찬대 "순직 해병·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 바로 세우기"

민주,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됐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추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

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다"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역시 범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며 "군사독재 시절 정치 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 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흥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 전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

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싸사람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행로를 열다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영

대한민국 크루즈 순위 1위

광주지사 1688-1104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조기예약 4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9월 30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기공 - 부산항

-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
-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진세선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롯데관광 특별 초청 게스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코스타 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종료규정: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중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여행보험: 여행자보험 50만원 가입 ●여행출발지: 인천(김해/대구/무안/청주공항) ●여행보험센터: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